

警友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전용찬 前 강원경찰청장



경우회 중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경우회는 지난 4월 19일 제 18대 경우회 중앙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용찬 전 강원경찰청장을 위촉하고, 21일에는 오병남, 김현구, 양기석, 하재훈, 민경우, 김상년 등 6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또한 중앙회 사랑방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현판식을 가졌다. 전용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공평정당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 브리핑

휴대폰으로 운전면허 벌점 안내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e-메일 등을 이용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등을 알려주는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재발급 신청시 운전면허증 교부일자 등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운전자는 경찰청(www.police.go.kr)이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경찰관서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은 이 서비스를 정지선 지키기 등 교통정책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전직 경찰관 부부 살해 용의자 검거

전직 경찰관 부부 살해 용의자들이 범행 3년 2개월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전직 경찰관 부부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이 모(46세,김해시 외동)씨를 구속하고 공범 윤 모(33세)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2월 17일과 18일 사이 경남 사천시 서포면 전직 경찰관 이 모(당시 58세)씨의 별장에 침입, 금품을 요구하다 이씨와 이씨의 아내 최 모(당시 52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이씨 등이 반항하자 흉기를 마구 휘둘러 이씨를 26곳, 이씨의 아내를 13곳 각각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이씨가 9년여전부터 함께 살던 동거녀(44세)에게 자신이 윤씨와 함께 사건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을 동거녀가 최근 김해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포리가 잡혔다.

허준영 청장 '수사권독립 장군' 패러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경찰 전문 포털사이트에 허준영 경찰청장을 수사권 조정을 이끄는 장군으로 패러디한 사진이 등장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전문 포털사이트인 '폴네티앙'(www.polneti-an.com)에 접속하면 초기화면에 허 청장을 장군으로 패러디한 사진이 실린 팝업창이 뜬다.

독도를 배경으로 한 이 사진에는 '독도를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국민의 인권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란 문구가 실려 있고, 그 옆에 허 청장이 갑옷 차림으로 두 손을 번쩍 치켜 든 채 구호를 외치는 듯 한 모습으로 서 있다. 허 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신의 패러디 사진을 소개했다.

警友會 발전에 남은 정열 바치겠다

전국 19개 市·道 경우회장 선거 성공적 마무리

지난 4월 한달 동안 전국의 19개 시도경우회 및 특별회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경우회 발전에 새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전국 19개 시도 경우회 및 특별회 가운데 8개 시도 회장이 새롭게 선출되었고, 11개 시도 경우회장이 유임되었다. 이제 경선과정에서 가졌던 갈등과 반목은 모두 털어버리고 조직발전과 화합을 위해 다시 하나로 뭉칠 때이다.

신임회장(8명)



권영국 서울경우회장



김찬순 대구경우회장



최인철 강원경우회장



이재덕 충북경우회장



오남범 전남경우회장



이은희 경북경우회장



오용환 해경경우회장



이주자 여경경우회장

유임회장(11명)



박정호 부산경우회장



김만호 인천경우회장



이장오 광주경우회장



장석조 대전충남경우회장



김정원 울산경우회장



이동국 경기경우회장



정정원 전북경우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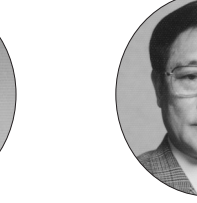
김상연 경남경우회장



김영중 제주경우회장



문학동 참전경찰유공자회장



신동호 기능경우회장

李相斗의 교통상식<36>



지난 10년간 무사고 운전 기록을 세우고 있던 홍모씨(39)는 지난 주말 승용차를 몰고 삼청동을 지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홍씨는 삼청동 고개 전 사거리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택시와 측면 충돌사고가 난 것.

원래 차량소통이 많지 않아 4색 신호등 대신 점멸등이 설치돼 있

는 이면도로였기 때문에 벌이 없었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

전한다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택시 승객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홍씨도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문제는 점멸등의 색깔. 홍씨가

진행하던 길에는 빨간색 점멸등이

있었고 택시가 진행하던 길에는

노란색 점멸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현장 상황을 조사한 경찰관은

대뜸 『이번 사고는 홍씨에게 과실

적색과 황색신호 점멸신호 운영되는

교차로, 황색점멸 신호 통행우선

이 있다.』고 말했다.

교차로에서 황색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이 설치돼 있는 경우 통상

황색점멸등이 있는 길을 통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설명이

었다. 경찰관은 또 황색점멸등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서행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적색점멸등은 정

지선이 있을 때 정지선이나 정지

선이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색점멸등에서 진입

하는 차량에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결국 홍씨는 택시

에 통행권을 양보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적색/황색 점멸등의 의미

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진행하

다 그만 사고 가해자로 판정되어

상대 차량을 보름 처리해 주고

조사경찰관으로부터 스티커를 받

은 후 사고처리를 마칠 수 있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276-43 (101

호) 전화: 02-489-2380~1



단원들이 연주에 열중하고 있다.

안정된 미래는 능력개발과 지식향상으로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직업안정교육 안내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는 회원과 가족 및 현직 경찰관 여러분께 미래를 보장할 자격증 취득과 직업안정을 위한 특별교육 혜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강좌

- 경비지도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영어 강좌 외 400여 강좌

수강대상

- 경우회 회원 및 가족
- 전·현직 경찰관 및 일반인

수강혜택

- 전강좌 무료 수강 후 월1만원으로 모든강좌 수강가능

주최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www.ex-police.co.kr

협찬 :

“사교육비 제로” 교육포털사이트
www.egbox.co.kr

주최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www.ex-police.co.kr